

## 정서공감과 우울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최혜라, 한수미, 김환\*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dep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riticism

Hyera Choi, Sumi Han, Hwan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요약** 우울한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반추하므로 외부를 향한 관심이나 반응성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반응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공감에 있어서 우울한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보일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146명의 온라인 대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얻어 공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공감의 인지적 측면인 조망수용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공감의 정서적 측면 중 공감적 반응과 공감적 관심 역시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서 공감의 지표인 개인적 고통의 경우 우울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공감 관련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는 조망수용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고통이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다중회귀분석과 Sobel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자기비난은 개인적 고통의 정적 효과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Abstract** While depressives tend to be preoccupied with their own grief and the negative aspects, they might lack the capacity to interact with outside world. With the intention to determine whether depressives might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regarding empathic behavior, as behavior is highly based on responsiveness to other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depression. In addition,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ri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depression. Data was collected from 146 online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using th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Results showed that perspective taking, which is the cognitive aspect of empath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Concerning the emotional aspects of empathy, both empathic responding and empathic concer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while personal di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egression results, which set the empathy related variables as predicting variables, found perspective taking decreased depression, and personal distress enhanced depression. In addition, personal distress showed significant enhancing effect on depression and was completely mediated by self-criticism. With the resul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cognitive empathy, depression, emotional empathy, empathy, personal distress, mediating effect

#### 1. 서론

우울한 사람들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인 면

에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나타내고, 이분법적인 사고 양상을 보이는

\*Corresponding Author : Hwan Kim(Seoul Cyber Univ.)

Tel: +82-2-944-5023 email: loveyer@hanmail.net

Received October 10, 2017

Revised (1st November 9, 2017, 2nd December 8, 2017)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등 인지적인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1,2]. 일정수준 이상으로 심각한 우울의 경우에는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인지적 특성도 나타난다[3].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활동량과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고 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특성은 우울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의 하나이자 진단 기준이기도 하다[4]. 하지만 역시 우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장 명확하고도 정의적으로 구분해주는 측면은 정서적인 측면일 것이다. 우선 자명하게도 우울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우울’한 정서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그들은 정서적인 반응성 측면에서도 특징을 나타낸다.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유쾌하거나 즐거움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극의 정서가(valence)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5,6].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정서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공감능력에 있어서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떤 다른 특징을 보일까?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의 곤경에 자신을 대입하여 투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이며[7],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부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우울증인 사람은 대인관계 역기능을 나타내어, 유대감과 상호적 진실함을 느끼게 해주는 대인관계가 감소하거나 결여되는 특징을 보인다[8]. 대인관계의 감소는 외부 반응성의 저하와 그에 따른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에 근거하여 우울과 공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우울과 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양하지 않으며 연구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공감능력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할 때, 그 중 정서적 요소와 우울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9].

공감(empathy)이란 상대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회인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적이거나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10,11]. 공감은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공감이 충실하고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지각이 정확해짐과 더불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도 수월해진다고 한다[12]. 여러 공감 연구에서 공

감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인지적 측면은 타인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을 일컫는다[13,14]. 한편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은 공감에서 정서적 반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15,16]. 대부분의 공감 연구에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자들 중, Davis는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인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개발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16].

한편 최근에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구분하여 그 특성이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18,19]. 개념적으로도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은 분명한 구별이 가능하다. 인지 공감은 상대의 입장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거나 헤아리는 기초 능력으로서, 넓은 의미의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능력의 기반이 된다. 반면 정서공감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요체이다. 그런데 정서공감에서 강조하는 반응은 타인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타인이 울거나 아파할 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지라도 상대의 감정을 동감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즉 상대가 느끼는 정서의 원인을 모를 때에도 상대가 느끼는 정서를 체험하고 반응할 수 있기에 타인의 감정 상태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입장을 헤아려보는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이 서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공감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각 측면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 강조하는 세부, 또는 하위 측면들이 구별된다.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하위 요인이 구분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즉, 인지 공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이라는 개념만을 언급하지만, 정서 공감의 경우에는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공감적 반응(empathic responding) 등의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 고통, 공감적 관심, 공감적 반응은 개념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고 실제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도 괴로움을 느끼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부정적 정서를 대리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적 관심은 동정적 공감(compassionate empathy)이라고도 하며 타인의 감정을 대리 경험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타인을 돕거나 돌보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관심은 Davis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척도[16]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한편 공감적 반응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경향성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Spreng, McKinnon, Mar와 Levine이 개발한 토론토 공감 척도(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TEQ)[17]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에 주목하며, 정서공감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같은 정서공감 측정치라 하더라도 공감적 반응 변인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개인적 고통변인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지만 이러한 공감을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자기의 고통에 머물며, 고통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감정 조절도 못한다거나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과 우울의 정적 상관뿐 아니라,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비난과 같은 부정적 물두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요컨대, 공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개관한 결과 정서적 공감의 요인 중 공감적 반응과 개인적 고통이 우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여, 두 요인을 공히 측정하여 정서적 공감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적 고통이라는 변인이 우울과의 관계에서 특이성을 보이는 데 있어서 자기 비난과 같은 부정적 물두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연구자들이 가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1) 조망수용, 공감적 반응, 공감적 관심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 개인적 고통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3)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는 자기비난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타인을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공감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인지적 요인에는 조망수용이, 정서적 요인에는 개인적 고통, 공감적 관심과 공감적 반응이 해당된다. 이들 공감의 요인 중 인지적 요인과 우울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여, 대표적 요소인 조망수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8,20-22]. 하지만 그에 비해 정서적 공감과 우울의 관계는 불명확하여 각각의 하위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고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기도 한다[23-24].

우선 공감 중 인지공감과 우울의 관계는 비교적 명료하다. 마음이론이나 조망수용의 경우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8,20-22]. Davis의 IRI 중, 조망수용 소척도[16]를 통해 조망수용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본 Cusi, MacQueen, Spreng와 McKinnon[23]이나 Ekinci와 Ekinci[24]등의 연구자들이 모두 비환자 통제집단의 조망수용 점수가 우울집단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여, 우울집단의 조망수용 능력이 저조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IRI의 조망수용 소척도는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25,26], 이 역시 우울과 같은 정신증상이 조망수용 능력의 손상과 관련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감 중 정서공감과 우울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한 것 같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정서공감 간에 부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정적상관이 있다는 상충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서공감 내에서도 개인적 고통, 공감적 관심, 공감적 반응 등 다양한 하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측정 척도를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 상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자체를 측정하는 공감적 반응 변인의 경우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19],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능력도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IRI로 측정된 개인적 고통은 오히려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석호와 이영호, O'Conner, Berry, Weiss와 Gilbert, 그리고 Ekinci와 Ekinci는 일반인 집단에 비해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 개인적 고통 소척도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고[27-29], Lee는 개인

적 고통 소척도가 우울증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30].

이렇게 인과적인 방향에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서공감의 변인으로 공감적 반응과 개인적 고통을 동시에 측정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앞서 언급한 Cusi 등[23]도 유사한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우울증 환자 20명과 일반인 통제 집단 20명에게 IRI[16]와 TEQ[17]를 모두 실시하여 환자 집단에서 TEQ점수(공감적 반응), IRI의 조망수용과 공감적 관심 척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여주었다. IRI의 개인적 고통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우울증 환자 집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만 Cusi 등의 연구가 우울증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크기가 작았고[23],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그 대상으로 하되 표본 수를 늘리고 IRI와 TEQ를 동시에 실시하여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반복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공감과 우울간의 관계가 어떤 측정 변인을 택하여 어떤 척도를 통해 정서 공감을 측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공감의 하위요인 중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에 있어서는 우울이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타인의 고통에 자신도 괴로워하며 고통에 빠지는 경향성(개인적 고통)에 있어서는 우울과 공감이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이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이석호와 이영호[27]는 우울증 환자 집단에서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은 결과를 두고, 우울한 사람들의 정서공감능력이 더 우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몰두된 우울증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Batson은 일찍이 개인적 고통 자체가 유해한 자기 초점적 속성을 갖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31].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개인적 고통 척도는 정서공감을 측정하고자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으나, 그 목적과 의도의 달성에 분명히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고 타당성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감이라는 개념은 그 사전적 의미로서 이미 자명하게 자신에 대한 몰두보다는 타인에게 향하는 관심이 전제되며, 이 중 정서공감은 특히 타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개인적 고통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몰두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의해 촉발되어 함께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근본적인 주의와 초점은 자신의 고통에 맞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자기비난(self-criticism)을 설정하고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비난은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평가를 뜻하며[32],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자기비난은 부정적 결과를 타인이나 상황에 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귀인한다는 점에서 자기몰두적인 속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약 개인적 고통이 자신에게 몰두된 정서 반응성과 관련된다면 자기비난과 같이 부정적 자기몰두의 속성을 갖는 변인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Zahn-Waxler, Cole과 Barrett이 우울의 성차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죄책감과 공감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것을 들 수 있다[34]. 연구자들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공감이 추후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 증상의 취약성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개인적 고통과 같은 공감 경향성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O'Connor, Berry, Lewis, Mulherin과 Crisostomo는 우울한 사람들이 중간 이상의 공감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특히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이것이 무의식적인 자기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5]. 이는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비난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146명이 연구용 설문을 작성해 주었다. 온라인대학교 학생들은 일반대학교 학생들과 달리 연령대나 학력, 직업이 다양하다. 146명 중 남자는 34명(23.3%), 여자는 112명(76.7%)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평균연령은 41.6세( $SD=9.98$ )였다.

### 3.2 측정도구

#### 3.2.1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역학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36]. 국내에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번안 사용되다가,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이 통합적 한국판 CES-D로 번안, 타당화하였다[37]. 한국판 CES-D는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각 문항에 대해 0점(극히 드물다)부터 3점(대부분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는 .91로 보고되었다[36].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94였다.

#### 3.2.2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본 연구에서 공감의 인지적 측면으로 조망수용을, 그리고 정서적 측면 중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Davis의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RI)[16]를 국내에서 박성희가 번안하고[38] 정연희가 수정, 보완한 척도[39]를 사용하였다. Davis는 본래 IRI에서 4가지 하위 차원을 설정하여 척도를 제작하였다. 네 가지 하위 차원은 각각 조망 수용(perspective taking; PT), 상상(fantasy; FT),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EC),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PD)이다. IRI는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각 하위 차원 당 7개의 문항이 있어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6]. 박성희는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합치도를 .70~.78 사이로 보고한 바 있고, 60일에서 75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62~.81로 보고하였다[38]. 강일 등의 한국어판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의 경우는 내적합치도를 .80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76으로 보고하였다[40].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의 최근 주장[41]에 따라 상상 차원을 배제하고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세 변인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PT 소척도 .71, EC 소척도 .66, PD 소척도 .70으로 나타났다.

#### 3.2.3 토론토 정서공감 척도(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TEQ)

본 연구에서 공감적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로 Spreng, McKinnon, Mar와 Levine이 제작한 토론토 공감 질문지

(TEQ)[17]를 김환과 한수미가 한국판으로 번안, 타당화한 척도[42]를 사용하였다. TEQ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을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적 반응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Spreng 등은 TEQ의 내적합치도를 .85로 보고하였고[17], 김환과 한수미는 한국판 TEQ의 내적합치도를 .77로 보고하였으며[42],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 3.2.4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Self-Critical cognition scale; SCCS)

본 연구에서 자기비난을 측정하기 위해, Ishiyama와 Munson이 개발하고[43] 이해미가 번안한[44]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는 부정적인 자기진술을 측정하는데, 부정적인 자기 정보, 부정적 정보를 다루는데 실패함, 부정적 자기정보에 대한 과일반화, 객관적인 지각의 손실과 자기비난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의 경향성을 측정한다. 본래 13문항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점수가 자기관련 정보에 더 많은 자기비판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해미가 번안하였는데, 원 척도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뺀 10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44]. Ishiyama와 Munson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9였으며[43],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의 과목개시판에 연구에 대한 공지를 올려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생들만 모집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게시판에서 설문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연구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번호나 학번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연구 자료 분석을 위해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 20.0 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변인의 특성 파악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변인 간 관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감의 여러 측면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모형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독립변

인들 간 상관이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경우 회귀 분석 결과를 신뢰롭게 해석할 수 없다. Berry와 Feldman은 분산팽창계수(VIF)가 10 이하,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45]. 마지막으로 개인적 고통이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 자기비난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가 제시한 절차[46]에 따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함께 실시하였다[47]. Sobel 검증은 Sophe가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였다[48]. Sobel 검증의 경우 검증값이 1.96보다 크거나 또는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한다.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감, 우울 및 자기비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정보를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depression, empathy, and self criticism

Variables	Mean (SD)	Skewnes	Kurtosis	
Depression	18.38 (11.44)	.801	.015	
Cognitive empathy	Perspective taking	25.71 (4.06)	-0.524	1.897
	Empathic responding	42.92 (6.45)	-0.172	.806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26.88 (3.92)	-0.455	.215
	Personal distress	21.37 (4.65)	.065	-0.132
Self criticism	24.78 (9.23)	.610	-0.6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척도 점수들 간 상관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and empathy related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				
2	-.352**	-			
3	-.248**	.440**	-		
4	-.151*	.444**	.625**	-	
5	.417**	-.249**	-.077	.084	-
6	.685**	-.457**	-.341**	-.186*	.585**

1. Depression, 2. Perspective taking, 3. Empathic responding, 4. Empathic concern, 5. Personal distress, 6. Self criticism  
\* $p < .05$ , \*\* $p < .01$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우울은 자기비난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 자기비난은 조망수용, 공감적 반응, 공감적 관심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개인적 고통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개인적 고통은 다른 공감 관련 변인들과, 변인간 상관의 방향에 있어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감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볼 때, 개인적 고통 변인은 공감의 인지적 측면인 조망수용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 고통은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이나 공감적 반응과의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내지 않았다.

### 4.2 공감 관련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공감 관련 변인들, 즉 조망수용, 공감적 반응,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분산팽창계수 값들(1.14~1.81)은 10보다 현저하게 작고 공차한계 값(.55~.88) 역시 0.1보다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The effects of empathic related variables on depression.

Variables	Coefficient B beta	t	P value	R <sup>2</sup>	F
1	24.295	2.743	.007		
2	-.558	-.197	-.122	.036	
3	-.233	-.131	-1.305	.194	.255
4	-.053	-.018	-.178	.859	
5	.020	.362	4.396	.000	10.716**

1. Constant, 2. Perspective taking, 3. Empathic responding, 4. Empathic concern, 5. Personal distress  
\* $p < .05$ , \*\* $p < .01$

공감관련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관련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였을 때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 $R^2$ )은 .255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투입된 예측변인들 중에 조망수용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적 고통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감적 반응과 공감적 관심은 우울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고통 변인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개인적 고통 변인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자기 몰두인 자기비난적 경향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방식[46]대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때 역시 분산팽창계수(1.544)와 공차한계(.65) 값을 살펴보았는데,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1로 나타냈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riticism on personal distress' effect on depression

Step	PV → DV	B	SEM	$\beta$	t
1	PD→SC	1.162	.134	.585	8.658**
		F = 74.964**		R <sup>2</sup> = .342	
2	PD→D	1.060	.204	.414	5.184**
		F = 26.875**		R <sup>2</sup> = .174	
3	PD→D	.039	.204	.015	.190
	SC→D	.862	.102	.676	8.419**
		F = 56.213**		R <sup>2</sup> = .470	

PV: predicting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PD: personal distress, SC: self criticism, D: depression  
 Sobel test(Z) = 6.05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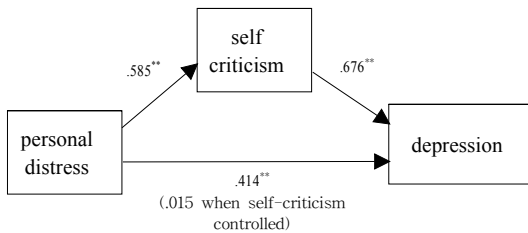


Fig. 2.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riticism on personal distress' effect on depression

이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414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는데, 자기비난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회귀계수는 .015로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통계적으로도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자기비난의 매개역할이 유의미함을 의미하며, Sobel 검증에서도 z 값이 기준값인 1.96보다 커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줄어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라 할 수 있다.

##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공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공감이라는 개념에서 정서적 측면이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해 보았다. 흔히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결과이다[8,20-23,25,26]. 이에 반해 공감의 정서적 측면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23]와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24,28,30]가 혼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공감과 관련된 변인인 공감적 반응,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중 무엇을 정서공감 측정치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정서공감과 우울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공감과 우울의 관련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공감의 인지적 측면인 조망수용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공감의 정서적 측면 중 공감적 반응과 공감적 관심 역시 우울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서공감의 지표인 개인적 고통의 경우 우울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도 괴로움을 느끼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서공감의 한 측면이긴 하지만 유해한 자기초점적 속성을 지니므로 [31] 우울과 정적상관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공감 관련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는 조망수용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과 공감적 반응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추론해보면,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비난이

매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가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자기비난은 개인적 고통의 정적 효과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우울과 공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고, 특히 정서공감의 세 가지 변인인 공감적 반응,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적 반응과 공감적 관심의 상관은 .625로 매우 높았고 우울이나 자기비난과의 상관 패턴에서도 두 변인 공히 부적 상관을 나타내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적 고통은 다른 두 변인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였다. 즉, 개인적 고통은 정서공감의 다른 두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우울이나 자기비난과도 정적상관을 보임으로서 공감적 반응이나 공감적 관심과는 정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차별되는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으로써, 기존의 상충하거나 비밀관적인 것으로 보였던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거나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자신도 고통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공감의 한 현상이나, 특질로서의 개인적 고통 경향성은 역기능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Bloom이 언급한 바를 주목할 만한데, 공감은 무차별성이 있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특정 맥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공감이 부정적 맥락에서 작동하면 편향된 의사결정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49]. 개인적 고통은 정서공감의 한 측면이긴 하지만 내적 고통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어두운 측면(dark side)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인적 고통을 정서공감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경우, 정서공감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이나 안녕감과 관련하여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이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개인적 고통을 정서공감의 측정치로 사용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 역시 유사한 결론을 도출했다. 우울과의 관련성 [6,28] 외에도, 개인적 고통은 신경증과도 상관을 보였으며[5,42], 감정표현불능증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냈고[50], 자율성이나 자기수용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51]. 정서공감 전반이 관계의 발달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유능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그 하위 변인 중 하나인 개인적 고통은 역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또 본 연구가 공감과 우울의 관련성에 대해 탐구함으

로써 우울의 특징을 밝히고, 우울증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는 변인의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망수용과 공감적 반응 및 공감적 관심이 우울과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우울한 사람들은 관심의 범위가 좁아지고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기 어려우며, 타인의 감정에 반응을 보이거나 관심을 기울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대인관계의 회피 및 철수로 이어져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증가시키고 우울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입장을 잘 헤아리거나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대인교류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우울을 덜 경험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적 고통은 우울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에 촉발되어 본인도 함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쉽게 우울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고통이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이 자기비난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Batson의 이론[31] 및 이석호와 이영호의 주장[27]을 발전시켜, 개인적 고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감정조절을 못한다거나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설명 외에 다른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Decety와 Lamm은 공감과 개인적 고통이 별개의 용어일 수 있다고 주장[52]한 바 있는데, 그들은 공감이 자신과 타인 간 경계를 명확하게 유지하면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인 반면 개인적 고통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즉, 자신과 타인 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개인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고통 속에 내재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거리두기 하거나 분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 개인적 고통 변인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고통과 유사한 정서전염을 측정하는 척도[53]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정서전염과 불안애착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도 있다 [54,55]. 이들 연구 결과는 개인적 고통 속에 불안애착의 속성이 있어 이것이 우울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추후 관련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정서공감에 대해 연구할 때 어떤 척도를 사용하



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공감적 반응은 Spreng 등의 TEQ[17]로, 그리고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Davis의 IRI[16]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공감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면, 향후 일관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IRI의 개인적 고통 척도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IRI의 개인적 고통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Cliffordson, 그리고 Alterman, McDermott, Cacciola와 Rutherford는 개인적 고통이 신경증 성향에 가까우며 정서공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보았고[56,57], 앞에서 언급한 Decety와 Lamm 및 Baron-Cohen과 Wheelwright 역시 IRI의 개인적 고통 소척도가 공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58,5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 사례수를 늘려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M. T. Moore, D. M. Fresco, "Depressive realism: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2, pp. 496-509, 2012.  
DOI: <https://doi.org/10.1016/j.cpr.2012.05.004>
- [2] D. A. Clark, A.T. Beck,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of depression", p. 17-18, John Wiley and Sons, 1999.
- [3] R. S. McIntyre, D. S. Cha, J. K. Soczynska, "Cognitive deficits and functional outcome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eterminants, substrates, and treatment interventions", *Depression and Anxiety*, vol. 30, pp. 515-527, 2013.  
DOI: <https://doi.org/10.1002/da.22063>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Psychiatric Publisher, p. 296, 2013.
- [5] J. Rottenberg, K. L. Kasch, J. J. Gross, I. H. Gotlib, "Sadness and amusement reactivity differentially predict concurrent and prospective disorder," *Emotion*, vol. 2, pp. 135-146, 2002.  
DOI: <https://doi.org/10.1037/1528-3542.2.2.135>
- [6] M. Ratcliffe, "The phenomenology of depression and the nature of empathy",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vol. 16, pp. 1-12, 2013.
- [7] S. Varga, J. Krueger, "Background emotions, proximity and distributed emotion regulation,"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vol. 4, pp. 271-292, 2013.  
DOI: <https://doi.org/10.1007/s13164-013-0134-7>
- [8] L. Lee, K. L. Harkness, M. A. Sabbagh, J. A. Jacobson, "Mental state decoding abilities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vol. 86, pp. 247-258, 2005.  
DOI: <https://doi.org/10.1016/j.jad.2005.02.007>
- [9] N. Eisenberg. Empathy and sympathy. In M. Lewis, J.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 p. 677 - 691. New York: Guilford. 2000.
- [10] M. V. Mestre, P. Samper, M.D. Frias, A. M. Tur, A. M., "Are women more empathetic than man? A longitudinal study in adolescenc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12, pp. 76-83, 2009.  
DOI: <https://doi.org/10.1017/S1138741600001499>
- [11] M. L. Knapp.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Boston: Allyn and Bacon, pp. 33-34, 1984.
- [12] J. Piaget,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1932.
- [13] G.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 [14] A. Mehrabian, N. Epstein, N.,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pp. 525-543, 1972.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1972.tb00078.x>
- [15] E. Stotland,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empath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1969.  
DOI: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080-5](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080-5)
- [16]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pp. 113-126, 1983.  
DOI: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080-5](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080-5)
- [17] R. N. Spreng, M. C. McKinnon, R. A. Mar, B. Levine,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factor-analytic solution to multiple empathy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91, pp. 62-71,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484381>
- [18] S. D. Preston, F. B. de Waal,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Brain Sciences*, 25, pp. 1-20, 2002.
- [19] K. P. Rankin, J. H. Kramer, B. L. Miller, "Patterns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Cognitive Behavioral Neurology*, 18, pp. 28-36, 2005.  
DOI: <https://doi.org/10.1097/01.wnn.0000152225.05377.ab>
- [20] Y. Inoue, Y. Tonooka, K. Yamada, S. Kanba, "Deficiency of theory of mind inpatients with remitted mood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vol. 82, pp. 403-409, 2004.
- [21] J. Uekermann, S. Channon, C. Lehmkemper, M. Abdel-Hamid, W. Vollmoeller, I. Daum, I. "Executive function, mentalizing and humor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vol. 14, pp. 55-62, 2008.  
DOI: <https://doi.org/10.1017/S1355617708080016>

- [22] Y. G. Wang, Y. Q. Wang, S. L. Chen, C. Y. Zhu, K. Wang, "Theory of mind disability in major depression with or without psychotic symptoms: a componential view," *Psychiatry Research*, vol. 161, pp. 153-161, 2008.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07.07.018>
- [23] A. M. Cusi, G. M. MacQueen, R. N. Spreng, M. C. McKinnon, M. C, "Altered empathic responding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Relation to symptom severity, illness burden, and psychosocial outcome," *Psychiatry Research*, vol. 188, pp. 231-236, 2011.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1.04.013>
- [24] O. Ekinci, A. Ekinci,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responding and its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The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logical Sciences*, vol. 29, pp. 145-154, 2016.  
DOI: <https://doi.org/10.5350/DAJPN2016290206>
- [25] T. D. Shanafelt, C. West, X. Zhao, P. Novotny, J. Kolars, T. Habermann, J. Sloan,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personal well-being and enhanced empathy among internal medicine resident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vol. 20, pp. 559-564, 2005.  
DOI: <https://doi.org/10.1007/s11606-005-0102-8>
- [26] M. R. Thomas, L. N. Dyrbye, J. L. Huntington, K. L. Lawson, P. J. Novotny, J. A. Sloan, T. D. Shanafelt, "How do distress and well-being relate to medical student empathy? A multicenter study,"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vol. 22, pp. 177-183, 2007.  
DOI: <https://doi.org/10.1007/s11606-006-0039-6>
- [27] S. H. Lee, Y. H. Lee, "Empathic Accuracy and Self-reported Empathic Ability i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3, pp. 17-33, 2004.
- [28] L. E. O'Conner, J. W. Berry, J. Weiss, P. Gilbert, P, "Guilt, fear, submission, and empathy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71, pp. 19-27, 2002.
- [29] O. Ekinci, A. Ekinci,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responding and its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The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logical Sciences*, vol. 29, pp. 145-154, 2016.  
DOI: <https://doi.org/10.5350/DAJPN2016290206>
- [30] S. A. Lee, "Does empath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7, pp. 429-433, 2009.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9.04.020>
- [31] C. D. Batson,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Erlbaum, 1991.
- [32] T. A. Powers, D. C. Zuroff, R. A. Topciu, "Covert and overt expression of self-criticism and perfectionism and their relation to dep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pp. 61-72, 2004.  
DOI: <https://doi.org/10.1002/per.499>
- [33] D. M. Dunkley, K. R. Blankstein, G. L. Flett, "Specific cognitive-personality vulnerability styles in depression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3, pp. 1041-1053, 1997.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97\)00079-2](https://doi.org/10.1016/S0191-8869(97)00079-2)
- [34] L. S. Radloff,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pp. 85-401,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35] C. Zahn-Waxler, P. M. Cole, K.C. Barrett, *Guilt and empathy: Sex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J. Garber & K. A. Dodge (Eds.),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243-272, 1991.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663963>
- [36] L. E. O'Connor, J. W. Berry, T. Lewis, K. Mulherin, P. S. Crisostomo, *Empathy and depression: The moral system on overdrive*. In T. Farrow & P.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pp. 49-75, 2007.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543753.005>
- [37] K. K. Chun, S. J. Choi,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6, no. 1, 59-76, 2001.
- [38] Park, SH. *Empathy, Empathic Comprehension*, Wonmisa, Seoul, 1994.
- [39] Y. H. Jung, "Counselor's empathy and perceived cultural similarity: effects on impression-formation about client,"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2.
- [40] I. Kang, S. W. Kee, S. E. Kim, B. S. Jeong, J. H. Hwang, J. E. Song, J. W.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y*, vol. 48(5), pp. 352-358, 2009.
- [41] J. A. Hall, M. H. Davis, M. Connelly, "Dispositional empathy in scientist and practitioner psychologists: Group differences and relationship to self-reported professional effectiveness," *Psychotherapy*, vol. 37, pp. 45-56, 2000.
- [42] H. Kim, S. Han, "A validation study of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 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5, pp. 809-821, 2016.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6.35.4.009>
- [43] F. I. Ishiyama, P. A. Muns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critical cogni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 vol. 72, pp. 147-154, 1993.  
DOI: <https://doi.org/10.2466/pr0.1993.72.1.147>
- [44] H. M. Lee,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Shame-inducing experiences," Master's thesis, 2009.
- [45] W. D. Berry, S. Feldman.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age, 1985.  
DOI: <https://doi.org/10.4135/9781412985208>
- [4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47]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3, pp. 290-312,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 [48] D. S. Soper, Sobel test calculator for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Software]. Available from <http://www.danielsoper.com/statcalc>. (accessed Apr. 18, 2017)
- [49] P. Bloom, "Empathy and its discontent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21, pp. 24-31, 2017. DOI: <https://doi.org/10.1016/j.tics.2016.11.004>
- [50] B. D. Bartholow, M. A. Sestir, E. B. Davi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exposure to video game violence: Hostile personality, empathy, and aggressiv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1, pp. 1573-1586, 2005.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5277205>
- [51] D. Grynberg, O. Luminet, O. Corneille, J. Grezes, S. Berthoz, "Alexithymia in the interpersonal domain: A general deficit of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9, pp. 45-850, 2010.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0.07.013>
- [52] D. Choi, N. Minote, T. Sekiya, S. Watanuki, "Relationship between trait empath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y*, vol. 7, pp. 1240-1247, 2016. DOI: <https://doi.org/10.4236/psych.2016.79126>
- [53] J. Decety, C. Lamm, "Human empathy through the lens of social neuroscience,"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vol. 6, pp. 1146-1163, 2006. DOI: <https://doi.org/10.1100/tsw.2006.221>
- [54] E. Hatfield, R. L. Rapson, Y. L. Le, "Emotional contagion and empathy.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MIT, 2009. DOI: <https://doi.org/10.7551/mitpress/9780262012973.003.0003>
- [55] S. H. Lee, D. M. Kim, Y. S. Seo, "The Effects of Counselor Attachment Styles and Counseling Experiences on Empathic A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vol. 18, no. 2, pp. 303-317, 2006.
- [56] J. Trusty, K. M. Ng, R. E. Watts, "Model of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motional empathy of counseling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3, pp. 66-77, 2005. DOI: <https://doi.org/10.1002/j.1556-6678.2005.tb00581.x>
- [57] C. Cliffordson, "Parents' judgments and students' self judgments of empathy: The structure of empathy and agreement of judgments based on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17, no. 1, pp. 36-47, 2001. DOI: <https://doi.org/10.1027//1015-5759.17.1.36>
- [58] A. I. Alterman, P. A. McDermott, J. S. Cacciola, M. J. Rutherford, "Latent structure of the Davis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n methadone maintenance patien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vol. 25, pp. 257-265, 2003. DOI: <https://doi.org/10.1023/A:1025936213110>
- [59] S. Baron-Cohen, S. Wheelwright,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 34, pp. 164-175, 2004. DOI: <https://doi.org/10.1023/B:JADD.0000022607.19833.00>

**최혜라(Hyera Choi)**

[정회원]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심리학과 박사 수료 (임상 및 상담심리학)
- 2011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심리, 교육, 임상심리

**한수미(Sumi Han)**

[정회원]



- 1995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학석사)
- 2007년 12월 :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박사)
- 2008년 7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 사이버상담

**김환(Hwa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심리학박사 (임상심리학)
- 2010년 5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정신건강